



정부기념식으로 위상 높아진 광주학생독립운동 재조명 활발

오늘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
사진전·음악회 등 행사 다채
올 89주년 행사 보훈처 주관
다음달 3일 문화전당서 열려
문 대통령 참석 여부도 관심

올해로 89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기념식으로 위상을 되찾아 다양한 기념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치러진다.

3·1운동, 6·10 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기념식 단계로 치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반영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 3일은 지난 1984년 '학생의 날',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이란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기념식도 공식적으로는 교육부 주관이었지만 사실상 광주시교육청 주관의 지역행사로 치러지면서 그 의미는 퇴색해 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보훈처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처음으로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광장에서 치러진다.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당국은 해당 장소가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한·일 학생 충돌 지점으로서 기념식 장소로서 의미가 있고, 요인 경호 등 행사 진행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행사 주최 측은 기념식 당일 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막판 대통령 불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11월 3일 제89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당시의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어린이들이 살펴보고 있다.

에 참석한다면 이는 1954년 이승만, 1964년 박정희,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가 된다.

되찾은 위상에 걸맞게 올해 기념식은 다양한 기념행사가 준비됐다.

24일 국회에서는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후원 아래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는 '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성과와 정신계승', 이계형 국민대 교수가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과 보훈사업 개선 방향', 김성광 광주대 초빙교수가 '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발전과정과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계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거나 부상을 입거나 제적당한 학생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훗날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훈·포장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화정동)에서는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관으로 '학생독립운동 연구논문 발표 학술세미나'가 개최

된다. 같은 장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당시 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장재성·매성 남매 미공개 사진 등을 포함해 214점을 자동 디스플레이 영상으로 공개해 학생독립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주말인 27일 오후 2시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학생독립운동 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열리고, 31일 오후 4시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쌍촌동)에서는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술값 때문에 불질러 5명 죽인 50대 사형 구형

술값 시비 때문에 주점에 불을 지르고 입구를 막아 33명의 사상자를 낸 선원 이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 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했다. 화재로 폐와 기관지가 상한 피해자 A(여·58)씨는 화재 상황을 작은 소리로 겨우 설명한 후 "화재로 숨진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 내내 울기만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밤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한 후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조폭 억울” 여운환씨 재심 기각 사유 뭐냐”

박지원 의원 국감서 철저한 법리 해석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모래시계'의 조폭 모델로 잘못 알려져 수십년째 고통을 받아온 여운환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지법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이 여운환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1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기각한 사유가 무엇인가"며 "1992년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홍준표 검사(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씨를 호남최대 폭력조직 두목으로 몰아세운 사건으로, 당사자는 수십년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측은 "무엇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수십년째 고통을 호소하며 훈준표 전 검사에 대해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하니,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철저한 법리 해석을 기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운환씨는 1992년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홍준표 검사가 자신을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파 두목으로 지목해 기소했다가 무죄선고를 받자, '자극적 겸 간부'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법원의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울증 치료감호 전력만으로 심신장애 인정 안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파문 속 법원 판결 주목

16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치료감호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명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A씨(배하) 등, 목 부위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2002년부터 약 16년 동안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을, 2012년에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

죄를 저지르고 2년 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우는 등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는 "2016년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 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고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 북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살해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60년째 등반대회 연 대구·경북 학생산악인들

‘전국 60km 극북등행대회’

1959년 대구서 첫 시작 후

정신 계승 위해 매년 열려

올해는 광주서 첫 개최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일제의 폭압에 맞서 광주·전남 학생들이 떨쳐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광주에서 발발, 이듬해 평양은 물론 중국 연해주·만주까지 확산했다. 당시 전국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쳤지만 운동의 시작과 같은 물론 그 중심에는 광주 학생들이 있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념일 명칭이 학생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등 '광주'라는 지명이 빠지거나 기념식도 광주·전남 지역행사로 축소돼 치러져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60년간 '항일 광주의정신 계승',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이라는 수식어를 대회명으로 내세워 등반대회를 열어온 대구·경북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구·경북 학생산악연맹, 경북산악회 회원들로, 대회 명칭은 전국 60km 극북 등행(登行) 대회다. 이들은 1959년 10월 23일 대구 팔공산 일원에서 첫 대회를 열었다.

대구·경북 고교생, 대학생으로 이뤄진 대구·경북 학생산악연맹은 1929년 광주학생의 정신을 계승한 11월 3일 학생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정의감과 동족애를 기르자는 취지로 60km의 험난한 구간을 역주했다. 이후 전년대 산악회 학생 등 전국 학생들이 소속 대회에 참가하면서 산악운동 보급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왔다.

올해로 6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과 경북산악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3, 4일 금당산-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관·광주학생운동기념역사관(광주일고) 등 광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참가한 학생, 일반부 120개 팀(3인 1조)이 달리기, 안벽등반, 응급처치, 산행 및 독도법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김홍빈 회장은 "광복 이후 대구·경북 산악인들은 광주학생 의거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59년 대구 팔공산에서 첫 대회를 열었고 광주·전남 산악인들도 그 뜻에 동참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학생산악연맹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학교 친구와 다투던 초등생 의식 잃고 쓰러져 병원 이송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친구와 다투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조사해 내렸다.

23일 오전 9시 50분께 목포시 연산동 A 초등학교 북도에서 정모(11·초5)군이 기절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정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

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군이 쉬는 시간에 학교 친구와 북도에서 다투 뒤 쓰러진 것으로 보고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후배 목 졸라 기절시키고 돈까지 빼앗은 10대 3명 검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 2명을 원룸으로 끌고 가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기절 시킨 뒤 금품까지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 협박, 공갈 등 혐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B(18)군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밤 11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원룸에서 후배 C(17)군 등 2명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박기섭 기자 parkks@

무안 지역 보건진료소에 뱀 출현 '대피 소동'

○··먹구렁이가 추정되는 뱀이 보건진료소에 출현해 간호사가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23일 무안소방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께 무안군 현경면 한 보건진료소 1층 진료 대기실에 뱀이 나타났다는 박모(여·34)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출동, 길이 60cm의

뱀을 포획해 인근 야산에 풀어줬다는 것.

○··소방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뱀이 동면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비좁고 따뜻한 보건진료소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면서 "뱀의 독성 유무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뱀을 발견할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8타경 9966	1	광산구 월계동 755-2 대우아파트 106동 2층 204호 99.90㎡	아파트	224,000,000 224,000,000	
2018타경 11273	1	광산구 신항동 1272 신정2차남양빌 204동 5층 502호 103.2617㎡	아파트	344,000,000 344,000,000	2018년8월 현재 미등기권리비 있음
2018타경 66549	1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518 438㎡ 장성군 황룡면 물외길 62-76 [주거주택제1종] 1층83.99㎡ 2층71.69㎡	대 단독주택	381,142,040 381,142,040	일괄매각, 수목포함
2018타경 66372	1	함순군 함순읍 감도리 398 1412㎡ [농지취전] 독자지적용역. 연고자이상분묘수기소재	전	70,596,000 70,596,000	수목포함매각, 비닐하우스매각 제외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8타경 7236		남구 월산동 144-5 148㎡ [공동주택] 1/4 전부, 임대차 1/4전부	대	82,814,000	일괄매각, 제세외 건물포함,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 회로제한
2018타경 10478	1	남구 독립로99번길20 1층64.44㎡ 2층55.67㎡ 무속건물 번소2.64㎡ [공동주택] 1/4 전부, 임대차 1/4전부 제세외 창고4.6㎡	점포및주거	82,814,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허되는 경우 그 공표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당사자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본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기대수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기대수고인과 최고기대수고인권을 취득한 다른 매수신청인들간의 입찰결과가 동일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출원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와 관계없이 법적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처리를 위해서는 등본제출을 납부한 후 등본제출수필확인서 및 등본제출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우체국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공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소유의 부담이 없었던 날로부터 먼저 주된부담권인고를 하고 그 후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 자득권사항을 가진 입찰자는 그 입찰보증금과 매수인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매각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무안법원의 민사신청(신청)과에서 전자공시시스템에 비치된 출력장치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명찰을 봉하여 투입할 수 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신분공고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양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신분은 공고되는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는 계산과 공고나 변경에 따른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검색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할 것이지만, 열람 가능한 것 이외의 열람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물건이 상환이나 환고, 대법원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현주